

한반도의 하나님,

태초에 하나의 조상, 하나의 말, 하나의 마음으로

흰 옷 입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.

그러나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해, 힘센 나라들 틈에 얽히고 설켜

남과 북 두 동강이로 산지가 칠십 년이 넘었습니다.

가서 보고 듣고 만져보고 싶고,

다만 가까이서 땅내음이라도 맡아보고 싶습니다.

그러나 오늘 이 자리 기도 말고는 드릴 게 없습니다.

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

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.

한반도 들어보지도 못한 감염병으로 온 인류가

벌써 삼 년을 고생해 오고 있는데,

뒤늦게 아무런 준비도 못한 저 북쪽 하늘 밑 형제와 자매들이

힘들고 어려운 병마를 얻게 되었습니다.

이 와중에 필요한 것을 속편히 말하지 못하고,

알면서도 필요한 것을 속히 건내 줄 수 없는

쓸모없는 사상과 이념의 허상을 단죄하여 주시고,

다만 긍휼과 자비의 손을 내어주셔서

우리 모두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.

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

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.

온 세상이 감염병과 전쟁, 그리고 불의에 신음하는 오늘,

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,

모든 믿는 사람들을 각성시켜 주시고,

힘과 권력, 무기가 없이는 살아도
사랑없이는 못 사는 인류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.
사랑없이는 못 사는 인류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.

주님,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.
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.

“잔디씨 같은 사랑을 이 땅에 뿌려 주소서.
봄비가 내려 적시면 고맙게 돌아나오리” *늦봄 문익환*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. **아멘.**

연승재, (2020 년 6 월 2 일: 시드니)



휴전선에 사용된 폐 철조망을 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십자가들(사진출처: *Asia Economy*, cm.asiae.co.kr)